

S&P 500·나스닥 또 최고치 경신

무역협상 낙관론 부상하면서 각각 0.52%·0.47% 상승 6,204.95·20,369.73에 마감

캐나다, 트럼프 압박에 디지털세 철회
미국재무 “다우주 협상 부산해질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론이 부상하면서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5.50포인트(0.63%) 오른 44,094.7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88포인트(0.52%) 오른 6,204.9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27포인트(0.47%) 오른 20,369.73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27일 종전 최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상승으로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캐나다가 미국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전날 철회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협상 타결 낙관론을 높였다.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의 디지털세를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지목하며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



뉴욕증권거래소 직원이 30일(현지시간) 개장벨이 울리면서 거래 업무를 보고 있다. [AFP]

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90일 시행 유예가 만료를 앞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영국, 중국 등 다른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낙관하며 협상 관련 새로운 소식을 기다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만약 우리가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4월 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늘 그렇듯이 마지막 주에 다가가면 압박이 커지면서 (협상이) 부산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이 통과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4월 9일부터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주요 교역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유예 사한인 7월 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7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할 전망이다.

한편 대형 은행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강세를 보였다. JP모건체이스가 0.98% 올랐고, 씨티(0.88%), 웰스파고(0.78%) 등도 강세를 나타냈다. ㉸

‘AI發 구직난 현실화’

챗GPT 출시후 영국서 ‘신입 채용’ 3분의 1 ‘증발’

대졸·인턴 등 초급 일자리 31.9%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출시 이후 영국에서 신입사원 일자리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구인·구직 사이트 애드주나의 분석에 따르면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구인 등록된 대졸자, 견습직, 인턴 등 ‘초급’ 일자리 수가 31.9% 감소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초급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29%에서 25%로 줄었다.

부문별로 소매 부문이 78.2%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물류, 창고, 관리 부문이 뒤를 이었다.

올해 5월 초급 일자리 수는 전년 동기보다 4.2%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일자리 수가 0.5%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과 엇갈리는 추세다.

5월 기준 구인 일자리 1개당 구직자는 평균 2.02명으로, 4월 1.98명보다 늘었고 일자리 1개가 채워지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39.6일에서 35.8일로 빨라졌다.

구인 등록된 일자리 평균 연봉은 4만2403파운드(약 7865만원)로 지난해 5월보다 9.4% 상승했

다. 제임스 니브 애드주나 데이터 과학 책임자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어려움에 더해 AI가 초급 일자리 축소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고용주의 국민보험료 부담 증가, 새 고용법안 등 고용주가 사람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I 활용해 인력을 줄일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도 늘고 있다.

2023년 5월 통신업체 BT는 2030년까지 통화 처리, 네트워크 진단 등 일자리 1만 개를 AI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15일 앨리스 커크비 BT 최고경영자(CEO)는 AI 기술을 보면 이런 계획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감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챗봇 ‘클로드’를 개발한 스타트업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는 최근 향후 5년간 AI가 모든 신입 사무직 일자리 절반을 없애 실업률이 10~20%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영기 기자

“주요 IB 10곳중 7곳 연내 1회 이내 금리인하 전망”

JP모건 등 5개사 연내 1회 인하 예상...BOA 등 2곳은 동결 전망

미국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해 중 1회 이내로 인하하고, 내년 중 2~3회 추가 인하할 것으로 대체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30일(현지시간) ‘2025년 미국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미 정책금리에 대한 주요 투자은행의 미국 금

리 인하에 대한 전망 및 특징에 관해 이처럼 설명했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골드만삭스, JP모건, 노무라, 도이체방크 등 5개사가 연내 25bp(1b=0.25%포인트) 연준 기준금리 인하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모건스탠리가 연내 기준금리 동결을 각각 예상했다. TD뱅크는 연내 50bp 인하를, 씨티와 웰스파고는

75bp 인하를 전망했다.

주요 10개 투자은행 가운데 5곳이 한 차례 인하, 2곳이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등 총 7개 금융사가 연준 자체 전망보다 금리 인하 횟수가 적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 낸 경제전망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제시한 바 있다. ㉸

트럼프, 시리아 제재 공식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시리아 제재를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된 행정명령 13338호(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시리아에 대한 추가 제재들도 모두 폐지했다.

이 조치는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해제 배경으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아메드 알사라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시리아를 6개월간 발전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들었다.

또 “미국은 시리아가 안정적이고 통일된 국가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테러 조직에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종교·민족 소수 집단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리아는 지역 안보와 번영에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미주 한인보험전문협회 회원사
CA License No. 0E81053
한인리뷰협회(KAMA) 공식지정 보험사
한인원단협회(KATA) 공식지정 보험사
한인호털협회(KOAH) 공식지정 보험사
상사지사협회(KITA) 특별회원

걱정고세요!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그룹건강보험, 종업원상해보험, 사업체보험
건물보험, 지상사보험, EPLI, 건축관련 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 생명보험, 은퇴연금

캘코보험
CAL-KOR Insurance
3255 Wilshire Blvd., Ste 1500, Los Angeles, CA
무료상담 (213) 387-5000
www.calkor.com